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



정민호 보해양조 전무



이수학 변호사



정진욱 새정치 정책위 부의장



박홍근 건축사

“아껴둔 땅 미래동력 충분... 최고보다 차별화 더 중요”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광주·전남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지난 4월에는 KTX호남선이 개통함에 따라 서울과 광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지난 7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부분 개관과 함께 오는 12월 완전 개관을 앞두고 있고, 광주·전남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도시에도 수많은 기관이 내려오는 등 광주·전남은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광주·전남은 우리가 아껴놓은 땅이다. 각 분야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정민호 보해양조 전무=“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사전적으로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다. 저는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타심, 의협심, 그리고 광주정신이 총체적으로 모여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전남에서는 9세기 장보고의 해상활동이 있었고, 16세기 임진왜란, 20~21세기에는 동학농민운동과 의병활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5·18광주항쟁 등이 있었다. 결국 이 지역의 정체성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 기반한다.

정체성의 동력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이 시대에 맞는 먹거리리를 확보해야 한다. 광주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광장이 소외받고 있다. 이 같은 정체성과 훌륭한 DNA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발전이 앞서야 한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가진 경쟁력을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농산물이 있다. 이 지역에 좋은 농토가 많기 때문이다. 우수한 해양자원이 많다. 완도 전복을 비롯해 다양한 해양자원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줄 수 있다. 광주의 무등산 등 우리 지역에는 천혜의 관광 문화 자원이 많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은 자원들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지인들은 광주·전남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KTX 호남선이 개통하면서 광주·전남은 타지역과 가까워졌다. 충분한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정체성이 정립되면 향토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토기업의 성장은 또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 결국 향토기업의 성장은 광주·전남의 발전과 함께한다. 우리 스스로가 향토기업에 이겼으면 한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와 문화콘텐츠 등으로 대표되는 특화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나주 빛가람 도시에는 한국전력 등 수많은 공공기관이 들어왔고, 광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했다.

이제는 지역 대학과 언론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한다.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지역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확보되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이 재확인된다.

▲이수학 변호사=발제를 준비하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 행복했다. 광주·전남을 논하기에 앞서 지역의 정체성을 소수, 즉 마이너리티(Minority)에서 찾고, ‘광주는 왜 정치적 소수인가’ ‘광주는 왜 경제적 소수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차 원우세미나 ‘광주·전남 정체성의 재정립과 발전’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차 원우세미나가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전남 정체성의 재정립과 발전’을 주제로 열렸다.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원우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남다름” “정치·사회발전소” “스토리”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차 원우 세미나'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 걸쳐 광주·전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타심·의협심·광주정신 기반 문화·관광자원에 스토리 입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해야

인간'라는 전제 하에 그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한다.

광주·전남은 오랫동안 정치적 소수였다. 과거에도 정치적 소수였고, 현재도 그렇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에는 대전을 포함한 충청도 인구가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인구를 추월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구도에서는 영원한 소수일 뿐이다. 정치적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과 인물 위주의 투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이념과 인물에 기반한 정치, 이념과 후보자의 팀웍에 기반한 선거를 해야 한다. 지역주의 정치와 선거는 우리를 영원한 소수로 만들기 때문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광자원에 주목해야 한다. 광주는 문화와 예향의 도시이며 민주화의 성지다. 도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매력 중의 하나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인데, 우리 광주는 그런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매력을 가진 도시에 콘텐트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만 전유한 매력처럼 포인트가 될 콘텐트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전남의 아름다운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에 제안한다. 관광부시장과 관광부지사를 세워 총괄직업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광주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인재 유출이다. 우리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항공대와 같은 우수한 교육기관을 세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수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정치적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문화산업과 관광에 더 투자해야 한다. 지역의 인재를 자체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정진욱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과거 광주·전남은 한국사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치·사회발전소였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모두 성공한 거의 유

‘지역’ 넘어 정책·인물 투표 호남정치 기득권 내려놓고 새 인물·비전으로 희망 살려야

일한 사례로 평가된다. 높은 수준의 창조성 없이는 세계적 경쟁을 이겨내기 어렵다. 창조성은 자유를 키우는 민주주의에서 온다. 전국민의 민주적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의식과 정치적 의식의 성장 원점은 5·18광주항쟁이다. 이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80년대 이후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을 모두 합친 것만큼이나 크다.

광주·전남은 한국 정치의 두 축 중 하나였다. 광주가 개혁적, 진보적, 민주적 통일지향 세력의 중심지였다면 대구는 수구적, 보수적 세력의 중심지였다. 또한 이 지역은 한국정치를 이끄는 인재의 산실이자 요람이기도 했다. 이것이 ‘호남정치’의 힘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주·전남의 정치적 정체성

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다. 김 대통령은 1995년 정계에 복귀하면서 인사의 혁신, 세력의 혁신을 강조했으며 집권기간에는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정치교육 등을 통해 민주주의 정당이 해야 할 일을 교육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김 대통령 때는 엘리트 정당과 대중 정당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엘리트 정당의 성격이 강했다. 결국 국회의원의 힘은 올라가고 국민의 힘은 약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거부감도 이 때문이다.

그 사이 호남 정치는 친노와 비노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 두 세력이 모두 기득권자인 상황이 된 것이다. 김 대통령이 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물과 세력 연합을 추진한 것에 반해 현재 호남 정치인은 기득권을 나눠갖는 세력으로 안주해 왔다.

이제는 광주·전남이 원래 가졌던 정체성의 복원과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면, 실천하려면 호남의 정치를 기득권에 가둬버린 기존의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 새 인물, 새 비전, 새 세력을 통해 광주·전남 정치의 희망을 살려야 한다.

▲박홍근 건축사=‘베스트(Best) 보다는 디프린트(Different)’. 최고를 지향하기보다는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광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핸디캡을 갖고 있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었다. 전당은 광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의 핵심에 있는 시설이다. 총장로와 급남로, 도청별관이 있고 인근에는 푸른길과 양림동 등이 있다.

5·18광주항쟁은 광주의 뿌리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것을 문화로 꽃피울 수 있는 DNA가 우리에게 있다. 꽃피우기 위해서는 광주를 개방해야 한다. 광주를 떠났던 인적 자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폴리도 큰 의미가 있다. 1차 폴리는 음식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스타 마케팅을 활용한 작품이다. 부정적 의견도 많지만 긍정적인 것을 부각시켜 간다면 광주의 문화 자산이 될 것이다. 3차 폴리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지역성을 극복해야만, 그리고 개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 4강 신화’로 많은 조명을 받았다. 그런데 2002년 이후 우리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 자산을 써하고 있었다. 월드컵경기장은 건축물 자체로도 훌륭하다. 광주의 자산, 문화적 자산을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정용성, 김현승 등 광주의 인물을 자신있게 내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광주 하면 무엇인가가 바로 떠오르고,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광주가 나와야 한다. 5·18광주항쟁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광주비엔날레 등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곳을 따라가면 차별화가 안 된다. 차별화를 통해 앞서 나가야 우리 것이 된다.

광주는 너무 정치에 편향된 것 같다. 호남이 정치 보다는 문화와 실리를 챙겨야 한다. 광주가 앞으로 살길은 문화다. 지역에서 정치 이야기를 그만하고 문화, 먹거리, 실리를 찾아야 한다.

/정리=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